## 경 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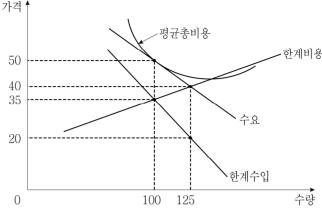
- 문 1. 소득분배와 관련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0분위분배율은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 ② 5분위배율은 값이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 ③ 지니계수는 값이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 ④ 지니계수는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배상태 측정에 유용하다.

문 2. 다음은 기업 A와 기업 B의 공격적 투자 혹은 보수적 투자 전략에 따른 이익을 나타내는 보수행렬(payoff matrix)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표의 괄호에서 앞의 숫자는 기업 A의 이익, 뒤의 숫자는 기업 B의 이익이다)

기업 B 기업 A	공격적 투자	보수적 투자
공격적 투자	(10, 5)	(9, 3)
보수적 투자	(8, 4)	(7, 2)

- ① 기업 A는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유일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 존재한다.
- ③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 ④ 두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림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장기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



+ 4 다음은 X재에 대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장기균형을 나타낸

- ①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과 평균총비용은 다르다.
- ② 기업은 125를 생산한다.
- ③ 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0보다 크다.
- ④ 기업은 초과설비(excess capacity)를 보유한다.
- 문 5. X재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 = 2,400 20Q이다. 수요곡선 상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A점의 수요량과 가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u>수요량</u>	<u>가격</u>
1	30	600
2	60	1,200
3	120	2,400
4	240	4,800

- 문 3.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는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나타난다.
  - ②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 방향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 ③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 ④ 소비에서 경합성이 존재한다.

- 문 6.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IS-LM-BP 곡선이 만나는 균형상태에 있다.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하고, LM 곡선은 우상향하며, 환율예상은 정태적이다)
  - ①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수입할당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총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②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확장통화정책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총소득을 증대시킨다.
  - ③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된다.
  - ④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관세부과는 국내 통화확장을 유발하고 총소득을 증대시킨다.

문 10.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_1, x_2) = \sqrt{x_1} + \sqrt{x_2}$ 이다.

재화  $x_1$ 과  $x_2$ 의 가격은 각각 2, 1이고, 예산은 200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정부가  $x_2$ 에 단위당 1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얻게되는 조세수입은? (단,  $x_i$ 는 정상재 i의 소비량이고, i=1, 2이다)

문 7. 다음은 2020년과 2021년 한국과 미국의 물가지수, 원/달러 명목환율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년	2021년
한국물가지수	10,000	12,000
미국물가지수	100	100
원/달러 명목환율	100	120

- ①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에 따른 실질환율은 불변이다.
- ② 명목환율 움직임은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의 주장과 일치한다.
- ③ 명목환율 움직임은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의 주장과 반대된다.
- ④ 명목환율 상승으로 한국의 대미 순수출이 증가한다.

- 문 8.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기대이론(expectations theory)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기가 다른 채권들은 완전대체재이다.
  - ② 장・단기이자율의 동반변화 현상을 잘 설명한다.
  - ③ 수익률곡선이 전형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④ 현재에 비해 미래 단기이자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익률곡선은 우하향한다.
- 문 11. 신고전학파의 투자모형(Neoclassical model of investment)에서 자본의 순투자(net investment)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감가상각률 하락
  - ② 기술 발전

25
 50
 75

④ 100

- ③ 고용량 감소
- ④ 실질이자율 하락

- 문 9. 甲의 소득은 1,600만원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甲의 효용함수는  $U(I) = \sqrt{I}$ 이고, 사고를 당할 확률은 25%이다. 甲이 완전한 보험(full insurance)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료는? (단, I는 甲의 소득이다)
  - ① 365만원
  - ② 370만원
  - ③ 375만원
  - ④ 380만원

- 문 12. 통화공급의 증가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소비가 증가한다.
  - ② 토빈의 q(Tobin's q)가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 ③ 기업의 재무상태(balance sheet)가 개선되므로 은행 차입이 증가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 ④ 가계 대출이 증가하여 유동성 제약을 받고 있는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다.

- 문 13. 소비자물가지수(CPI)와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CPI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대신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한다.
  - ② CPI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도출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변화하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 ③ 해외 생산되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의 인상은 한국 CPI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 ④ 경제 내에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CPI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문 16. 정부부채에 대한 리카디언 견해(Ricardian equivalence)를 따를 때, 차입을 통한 감세정책의 효과인 것은?
  - 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민저축을 감소시킨다.
  - ② 민간저축과 국민저축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민간저축을 증가시키지만 국민저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민간소비를 증가시키지만 국민저축을 감소시킨다.

## 문 14.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부분 재화의 경우,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가격탄력적이다.
- ② 재화의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는 더 가격탄력적이다.
- ③ 열등재의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 ④ 두 재화가 보완재인 경우,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 문 17. 새케인즈학파(New Kevnesi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별기업의 메뉴비용(menu cost)이 작다고 해도 가격의 경직성은 유지된다.
  - ② 가계와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③ 개별 생산자들이 매우 높은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완전경쟁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 ④ 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수평에 가까워진다.

X재 가격,  $P_Y$ 는 Y재 가격이고, 甲국과  $\Box$ 국만 존재하며, X재와 Y재만 생산한다)

- ① 0.25
- ② 0.35
- 3 0.45
- 4 0.55

- 문 18.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실업은 노동공급량이 노동수요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②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탐색에 나서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③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은 구조적 실업의 원인 중 하나이다.
  - ④ 균형임금보다 높은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은 구조적 실업의 원인 중 하나이다.

- 문 19. 다음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 중앙은행이 목표 명목정책 금리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목표 명목정책금리 = 실제 인플레이션율 + 균형 실질정책 금리 + 0.5 × 산출갭 + 0.5 × 인플레이션갭

(단, 산출갭 =  $\left(\frac{$ 실제 실질GDP - 잠재 실질GDP}{ 잠재 실질GDP}\right) × 100,

인플레이션갭 = 실제 인플레이션율 - 목표 인플레이션율)

- ① 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이 목표 명목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 ② 현재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경우목표 명목정책금리를 내린다.
- ③ 중앙은행이 경제의 잠재실질GDP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목표 명목정책금리는 적정수준보다 낮게 결정된다.
- ④ 균형 실질정책금리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면, 목표 명목정책금리는 적정수준보다 높아지게 된다.

- 문 20. 생산함수  $Y = K^{0.5}L^{0.5}$ 를 갖는 솔로우(Solow)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술진보는 없고, Y, K, L은 각각 생산물, 자본, 노동이며, 인구성장률은 1%, 감가상각률은 4%, 한계소비 성향은 0.7이다)
  - ①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자본량은 6이다.
  - ②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비량은 5이다.
  - ③ 황금률(golden rule) 수준에서 1인당 자본량은 10이다.
  - ④ 황금률 수준에서 1인당 소비량은 5이다.

- 문 21.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제 전체의 자본량이 증가하면 단기 총공급곡선과 장기 총공급곡선 모두 우측으로 이동한다.
  - ② 명목임금이 단기적으로 신축적이라는 가정은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 ③ 완전고용을 가정하는 고전학파 모형에서 확장 재정정책은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 ④ 물가하락 시 실질화폐잔고 증가로 인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문 22. 다음은 A기업의 한계생산물과 비용을 나타낸다. w=5, r=10인 경우, 최대산출량을 가져다주는 노동과 자본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L은 노동, K는 자본, w는 임금, r은 자본의 임대료이다)

 $\circ$  노동의 한계생산물:  $MP_L = 100K - L$ 

 $\circ$  자본의 한계생산물:  $MP_K = 100L - 4K$ 

 $\circ$  비용: wL+rK=1,000

<u>노동</u> <u>자본</u> ① 70 65

2 80 60

③ 90 55

100
50

문 23. 독점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X재를 두 개의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가격차별을 실시할 때, 독점기업이 당면하는 시장1과 시장2에서의 수요함수와 총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각 시장에서의 가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소비자 간의 차익거래는 금지되어 있고,  $P_i$ 는 시장 i의 X재 가격, Q는 시장 i의 X재 수요량이고, i=1, 2이다)

○ 시장1:  $P_1 = 55 - Q_1$ 

 $\circ$  시장2:  $P_2 = -\frac{1}{2}Q_2 + 35$ 

 $\circ$  총비용함수:  $TC = \frac{1}{2} Q^2 + 5Q + 10$  (단,  $Q = Q_1 + Q_2$ )

② 43 33

3 42 32

(4) 41 31

- 문 24. IS-LM 모형으로 구성된 폐쇄경제가 균형상태에 있을 때,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하고, LM 곡선은 우상향하며, 물가는 고정이다)
  -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증가하고, 통화정책 효과는 감소한다.
  - ②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감소하고, 통화정책 효과는 증가한다.
  - ③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효과는 모두 증가한다.
  - ④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증가하고, 통화정책 효과는 감소한다.

- 문 25. 다음 폐쇄경제에서 정부지출이 100에서 125로, 물가가 2에서 5로 상승하는 경우, 균형소득과 균형이자율의 변화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Y*는 소득, *r*은 이자율이다)
  - 소비함수: *C*=200+0.75(*Y*-*T*)
  - 투자함수: *I*=200-25*r*
  - 정부지출: *G*=100
  - 조세: *T*=100
  - $\circ$  화폐수요함수:  $\frac{M^d}{P} = Y 100r$
  - $\circ$  화폐공급:  $M^s = 1,000$
  - 물가: *P*=2

	균형소득 변화량	균형이자율 변화량
1	-100	+1
2	-200	+1
3	-100	+2
4	-200	+2